



사진 : 김세호 에우세비오 (좌동성당 ·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35,1~6ㄴ.10

화 답 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 이사 35,4ㄴ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후렴)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1.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2.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3.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야고보서 5,7~10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태오 11,2~11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세례자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마케루스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마태 11.3)

감옥에 갇혀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단호하고 엄격한 비타협주의자였으며 자신에게는 철저한 금욕주의자였다. 요한은 메시아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 타작 마당의 곡식을 다루듯이 심판을 주관하실 강하신 분”(마태 3.11~12 참조)으로 여겼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자기처럼 죄인을 사정없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였기에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원수들을 심판해주실 것이라

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져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슴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마태 11.5)

세례자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줌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의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신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를 상기시키며 요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밝히신다.

균중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였지만(마태 14.5; 21.26),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마태 11.9)이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마태 11.11)이라고 높이 평가하신다. 그 까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라는 한계를 지닌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크다”(마태 11.11)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요한의 자리매김이 정해진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아야 할 때이다.

문 성 호
바로로 신부
물운대성당 주임



밥을 하기 전
귀한 쌀 한줌씩 좀도리 병에 덜어놓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부모님
우리는 아직도 여유가 없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선은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인데도 ...

글: 장경애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Seung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 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2.16(월)~17(화)
문성호 신부(물운대성당 주임)
12.18(수)~21(토)
성경오 신부(거제동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토 11:00~12:00
진행 : 김현지 리나

12.17(화) 청사통신
(청소년사목국 이야기)
출연 : 이규택 빈첸시오

12.20(금) 하늘타리(하느님의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부산 교우들을 만나는 시간)
출연 : 장산성당 주일학교 교사회

미션 파서블이기를 희망하며...

선교사로 살기 위해 멕시코로 온 지도 이제 일 년 하고도 육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둘 되돌아보면 놀라움과 은혜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본당에서 보좌신부로서 이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앞두고 있던 때에, 뜻밖에 찾아온 선교사 지원 기회는 지금껏 저에게 값진 선물들을 듬뿍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본당 사목만을 생각했지, 다른 소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우연이, 아니 이 섭리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찌다가 한국보다 열다섯 시간 느린 캄페체라는, 멕시코 내에서도 작고 가난한 주(州)의 한 본당까지 오게 됐을까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특히 아주 외진 마야 지역 원주민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신비롭고 엄청난 인연이구나 생각합니다.

이곳 한국외방선교회 멕시코 지부에서는 시골 지역 본당 사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 내 사제의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외진 곳에 위치한 본당에서 20개 정도의 공소를 돌며 미사를 집전하면서 진득하게 4~5년을 살 사제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도시 본당에서 3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갖고 있지만, 저 또한 이후에는 시골 본당에서 활

동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개 많이들 생각하시는 의료 사업이나 특별한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은 한국에서처럼 다시 본당 사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가 느끼는 보람 또한 한국에서와 같습니다. 성사를 집행하고 병자들을 방문하고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삶이 제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문화도 인종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다름에서 오는 한계, 언어적인 한계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을 거라 확신합니다.

■ 김 무 종 프란치스코 신부
멕시코 캄페체교구 선교



"라스트 홀리데이" - 지금, 용기의 나무에 꽃을 피우자

■ 감독 : 웨인 왕 ■ 2006년작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이다.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상은 달라진다. 꿈을 꾸며 살기도 하고 날마다 꿈을 살기도 한다. 우리의 삶은 늘 홀리데이이다. 우리는 우리의 홀리데이를 만들며 즐기고 있는가.

영화는 백화점 요리 코너에 근무하는 조지아가 날마다 꿈을 스크랩하며 살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꿈을 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과정을 그렸다. 그녀가 망설임과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와 사랑을 선택한 순간, 삶은 꽃이 피기 시작한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사람들과 친구가 되며, 참았던 침묵을 깨고 충고를 한다. 죽음이 곁에 온 조지아는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자신이 꿈꿔온 것과 사랑하는 이를 챙기기도 바쁘다. 우리를 좋아하는 그녀가 동경해온 디디에

주방장은 말한다. 송로나 표고버섯은 모두가 좋아하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순무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순무는 순무 자체의 깊은 맛으로 사랑받는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맺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녀가 대단해진 것은 그녀의 실체가 밝혀져서가 아니다. 그녀 자신이 '지금의 조지아'이기에 사랑받는 순무가 된 것이다.

감독은 쿠폰을 모으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그녀를 통해 꿈의 깃발을 흔들어 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대림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 뿐인 꽃이다.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용기의 나무에 꽃 피울 준비를 하며 주님 맛을 채비를 하면 어떨까.

■ 이미영 체칠리아 (가톨릭영화제 프로그래머 cecil-e@hanmail.net)



← 프란치스코

2019년 12월 15일

나 오늘 수녀님한테 야단 맞았다. 그래서 그런가 종일 되는 일도 없고ㅠㅠ

프란치스코

왜?

옆집에 냉담하고 있는 신자가 있어서 주보라도 가져다 줄려고 했는데,

수녀님이 그걸 보고, 미사 때 나눠주기도 모자라는데 가져 가면 어쩌냐고 그러시는거야..

프란치스코

쉬는 신자들에게 주보 보내기도 많이 하는데, 수녀님이 잘 모르셨나보다.

사실 주보는 미사시간에만 보는게 아니라 집에 가져 가서 차근차근 잘 읽어 보면 신앙에 도움 되는게 많거든.

그러게, 주보가 신부님 강론이 재미있을 때만 쓸모 있는 건 아니지 ^^ㅋㅋ

프란치스코

쉬는 신자들에게 백마디 하는 것보다 주보를 매주 가져다 주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심받고 있다는 거에 고마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몰래 가져 가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수녀님도 이해하시겠지.

프란치스코

ㅎㅎ그건 알아서 하시고,

참 스마트폰으로도 주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라.

오~ 감사감사♥



스마트폰으로 주보 받는 방법

카카오톡에서 '가톨릭부산'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신 후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을 보내주시면 매주 주보를 미리 받아보시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부산 채널 바로가기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와 형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 맞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작은 희망마저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적을 꿈꾸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민규 씨(가명)와 미진 씨(가명)도 삶의 고단함 속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쉽 없이 달렸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세상에 홀로 내몰린 민규 씨, 아버지와 남동생의 사망으로 절망을 느꼈던 미진 씨는 고통과 상실감으로 가득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통을 자양분으로 삼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갔고, 딸 은혜(가명)도 얻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기쁘게 준비하던 7월의 어느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민규 씨가 직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두개골이 부서지고 손가락이 절단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의료진은 고개를 저으며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미진 씨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행복은 이제 끝인 건가? 은혜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낙담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남편 곁을 지키고 있던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민규 씨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이것은 기적입니다'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그의 의지가 생명을 향해 움직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진 씨는 힘내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아직 끝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턱도 없는 치료비와 간병비로 인해 민규 씨의 치료가 중단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나왔던 과거의 힘든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 보자고 다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것을 믿어!'

그러면서 미진 씨는 병상에 누워 있는 민규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여보, 혹여 정신이 조금 모자라게 되어도, 몸이 좀 불편하게 되어도 괜찮아. 당신하고 은혜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당신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 줄게.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기적은 당신과 나의 곁에 있어."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사랑의 김장축제 - 생명의 밥, 나눔의 김치

로사리오 카리타스(상임이사: 강정웅 신부)는 지난 12월 7일(토)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 축제'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본당 사회복지분과, 평협, 여성연합회, 농아인선교회 등 180여 명의 봉사자들이 김장에 일손을 보탰

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교구 내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과 소규모시설에 전달했다.

또한 많은 본당에서도 김장김치를 담가, 구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사직대건성당, 홈페이지 우수 교우 시상



"매일 아침 기상 후, 스마트폰을 켜서 사직대건 성당홈에 접속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입니다." - 구현자 마리안나
 사직대건성당(주임: 김정욱 신부, 회장: 박찬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은 지난 12월 8일(일) 교중 미사 중에 한 해 동안 홈페이지 방문, 댓글 및 게시판 작성 등 인터넷 성당홈에서 열심히 활동한 신자 10명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2월 6일(금)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신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피정'이 있었다. 이날 홍성민 신부의

특강, 결산 보고가 있었고, 교구장과 함께하는 미사를 끝으로 피정을 마쳤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사제, 수도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힘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며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2019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12.27(금) 10:00 ■ 장소: 주교좌 남천성당 ■ 주례: 손삼석 주교

*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 12.18(수)~26(목)

사제들을 위한 기도 후 주모경

구.가톨릭기도서 P.91 (개정판.가톨릭기도서 P.101)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12.16(월) 10:00(목주기도), 10:30(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예신 피정(1, 2, 3차)

대상: 차수별 대상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1차(초6): 1.6(월) 14:00~7(화) 13:00

2차(중1): 1.7(화) 14:00~8(수) 13:00

3차(중2~고1): 1.9(목) 14:00~10(금) 13:00

마감: 12.30(월), 본당별 접수 / 회비: 3만 5천원

입금: 부산 04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 푸른나무교육관 / 문의: 629-8760~2(성소국)

전산홍보국 직원 구함

모집분야: 홍보 및 전산 업무 지원(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본당주임신부추천서, 자기소개서

접수: hongbo@catb.kr / 마감: 12.31(화)

문의: 629-8752(전산홍보국)

본 당

명지신도시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서류: 이력서 / 문의: 010-3864-5915

서동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구함

서류: 교적 / 문의: 525-3744

기관·제 단체·위원회

시각장애인선교회(큰빛) 후원회 미사

· 12.16(월) 12:00 · 선교회 3층 성전
문의: 464-3909

해양사목 월미사

· 12.16(월) 14:00 · 가톨릭센터 3층

주례: 이군태 신부 / 문의: 464-2707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 12.19(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특강: 복자 윤봉문 요셉 / 문의: 515-0030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 12.20(금) 10:00 · 문현성당

문의: 010-9312-4228(회장)

2019년 세계 선교지 선교차량 지원 현황:

동티모르 나몰래수(픽업트럭-4천8백만원),

필리핀 케손시티(승합차-3천3백만원),

아프리카 앙골라(픽업트럭-3천5백만원)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1.19(일) 15:00 부산성당

부산: 1.20(월) 20:00 남천성당

375차 ME주말: 1.31(금)~2.2(일)

사랑방ME 소개모임: 수시 / 문의: 010-5875-4767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홈페이지: 부산교구/성당홈/기관/영성의 집)

- 젊은이 기도회

· 12.16(월) 19:30 전포성당

· 12.1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12.22(일) 청소년 기도회 휴회

- 수요치유기도회

· 12.18(수) 12:50~16:00

강사: 박원석 형제

- 철야기도회 (캐롤의 밤)

· 12.20(금) 23:00~21(토) 04:00

정희상바로영성관 피정 안내

대림무료피정: 12.16(월) 10:00~16:30

성탄맞이피정: 12.20(금) 16:00~22(일) 점심

회비: 12만원 / 문의: (055)383-3101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 12.17(화) 14:00 · 가야성당

성모님께 봉헌식과 성체강복 및 안수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지속적인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12.20(금) 11:00 /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청학성당 / 문의: 466-2290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12.21(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전례꽃꽃이연구회 미리보는 전례꽃, 월미사

12월은 월례회 및 미사 없습니다

문의: 010-4554-1173, 010-2556-6380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16평, 20평, 36평)

문의: 462-1870, www.bccenter.or.kr

울산대학교병원 원목실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35세 이상 남,녀 신자

문의: (052)250-8065, 010-5058-0193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4. 12. 21. 이갑수(가브리엘) 주교님

'세상 속의 십자가' 작품 공모 (분야: 사진, 미술)

■ 마감 1월 31일(금)

■ 시상내역

금상: 1명 (상금: 50만원)

은상: 2명 (상금: 30만원)

동상: 00명

(교구 매체 사용 시 원고료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www.catholicbuan.or.kr) 참조 바랍니다.

수상작은 천주교부산교구 전산홍보국에서 가톨릭부산 주보, 교구달력 등 교구 인쇄물에 활용됩니다.

■ 작품출품내역

1. 디지털 사진 파일로만 제출(미술 작품은 당선 후 원본 제출)

2. 교회질로 촬영한 사진

3. 출품 수 제한 없음. 사진 작품은 리터치 가능

4. 출품 시 성명, 세례명, 성당명, 휴대전화번호, 작품명, 작품설명을 첨부

5. 제출: 교구 홈페이지 '세상 속의 십자가' 작품 공모 게시판

'요즘애들 우리애들' 12월의 가족미션



가족과 함께 대림초·겨교 기도하기

초를 하나씩 밝히며 아기에수님
을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대림
초를 켜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치킨교환권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카카오톡 '가톨릭부산' 검색 → 친구 추가 →
본당/이름/세례명/전화번호/사진 보내기

<p>(주)씨피여행사 1. 2/17 성모발원지순례 12월 340만원 2. 2/20 이스라엘,요르단 11월 425만원 3. 3/16 동유럽,발칸 12월 특가 360만원 4. 3/17 멕시코, 과달루페 7월 350만원 가톨릭센터 1층 247-5858 부산출발</p>	<p>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벳파)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마·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p>	<p>성형수술, 레이저시술, 피부과 진료 오두중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오두중(요한) 805-0200 카톡상담 ID: 오두중성형외과 서면 주디스태화 맞은편 우리은행 5층</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 경 우 (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p>	<p>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010-4566-6476</p>
<p>잇몸치료/보철틀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 원장. 박진철 (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p>	<p>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맞춤케어 제공 253-1932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p>	<p>부산경남 최대규모 제조업체 가나안보청기 유통마진(가격저렴) 제거 청각학 박사(교수) 맞춤상담 납포점, 서면점, 동래점, 미남역점 교우특별우대 257-3900 김도현 모세 010-7674-2828</p>	<p>발명특허 고주파 온열 자극기 수족냉증, 심부온열요법 부실한 혈관 때문에 생기는 질환 열로 몸을 다스린다 고 두 리 (안젤라) 010-3569-2692</p>	<p>이상열 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허리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목·어깨통증(오십견), 손·발 저림 및 시립 구서전철역 앞 동산약국 2층 원장/전문 의 상 열(베드로) 516-0888</p>

은혜로운 찬미와 고해 피정(2)

· 12.21(토) 10:00~15:00 · 시각선교회
문의: 464-3909(시각장애인선교회)
(점심드실 분 꼭 신청 바람)

농아인선교회 1월 수어교실 수강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개강: 1.7(화) 19:00 주 2회(화, 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6만원 (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1.9(목) 19:00 주 1회(목) 3개월 과정 / 수강료: 8만원 (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현재 접수중 / 문의: 751-8693, 010-4053-8102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본당 사무실 또는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 문의: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교육·모집·기타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20(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12.20(금) 11:00 · 남천성당 대성당
주례: 이흥기 몬시뇰 / 문의: 010-3577-6597

새예루살렘 전례 침묵 피정

· 12.22(일) 16:00~25(수) 오전 · 새 예루살렘

새해 해맞이 간절곶 밤샘 기도회

· 12.31(화) 22:00~1.1(수) 06:00 · 새 예루살렘
사전 전화 신청 (통행에 위한 비포 발급 위해)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예비중학생을 위한 겨울방학특강(집중공부교실)

· 1.11(토) 10:00~12:30/14:00~16:30(총5시간)
내용: 학습습관과 진단, 집중력강화, 시험전략, 시간활용 등
강사: 임성미(서울가톨릭대학교 독서교육과 겸임 교수, 서울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독서지도전문가)
문의: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예수회 무료월례특강 및 미사

· 12.20(금) 14:00~17:00 · 성분도 은혜의 집
주제: 내면의 자유 / 강사: 최준열 신부
문의: 010-9344-3843

분도명상의집 렉시오디비나(성독) 월기도모임

· 12.28(토) 10:00~16:30 · 분도 명상의 집
참가비: 1만 5천원 / 준비물: 성경
문의: 010-3271-0766(권 벨라렛다)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피정: 1.10(금)~18(토), 2.14(금)~22(토)
송년피정: 12.27(금)~29(일)
문의: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 12.30~1.2, 1.6~8, 1.31~2.2, 2.11~13, 2.19~20, 2.27~29 / 대상: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064)796-9181

투스평교포베네딕도 청년성탄전례피정

· 12.24(화)~25(수) · 대구 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청년 / 회비: 2만원
문의: 010-9890-3431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26(목)~31(화)
입학정원: 2912명 / 입학문의: (053)850-2580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12.26(목)~31(화)
문의: (043)270-0100

바로로말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입문 / 중급 / 성바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웹서: http://uus.pauline.or.kr / 마감: 1.31(금)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양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 가능)
· 1.4~6(한라산), 1.13~15, 1.17~19(한라산), 2.1~3, 2.7~9(한라산), 2.13~16(추자도)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산자연중학교 진학예비학교 학생 모집

· 1.7(화)~9(목) / 대상: (현)초6, 중1
문의: (054)338-0530

제주 성지순례 모집

· 1.3~5, 2.26~28, 3.20~22
· 제주 성지 7곳(성지해설)
(해외순례: 3.2(월)~13(금) 그리스, 터키)
문의: (064)805-9689(가톨릭사회경제연합)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1(월)~2.7(금) 우편신청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문의: (02)745-8339

청년 해외봉사 선교체행

· 2.8(토)~15(토) · 인도네시아 메단공동체 / 문의: 010-5313-0241(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골롬반성인과 함께하는 선교여행

· 4.8(수)~14(화) · 제주 강정마을 등
대상: 만 19세~40세, 선착순 10명
참가비: 25만원, 마감: 2월 말까지
문의: (02)927-2705(성골롬반외방선교회)

작은형제회 61차 이태리 순례

· 5.3(일)~15(금) / 450만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2.21(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엠폰신마리아성심수녀회	12.22(일) 13:30	본원	010-2835-4858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수시모집	경남 고성 수도원	010-8798-2986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 12.26(목)~31(화) *

* 선발 '군': 18개 학과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선발
*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방법: 홈페이지 참조 ipsi.cup.ac.kr

051-510-0702(입학처 입학관리부 김종진)

부산성모병원 신경과

기억력 괜찮으신가요?
건강보험 적용한 **치매검사** 받으세요

대상: 만 60세 이상 누구나
문의: 933-7957(신경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부산성모병원이 함께합니다.

가톨릭선용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 무료영화상영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철원기행 일시: 12.16(월) 19:00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인선극장 남만실버관)

가톨릭센터가 추천하는 가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영화
18:00 후연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p>	<p>수맥과 건강 불면증, 만성피로, 혈액순환장애, 정신집중 안됨 치료효과를 못보시는분, 문의환영 사무실 517-3233 서순복(말바나) 010-3862-6834</p>	<p>동의료원 무릎관절센터 무릎 관절염, 무릎 인공 관절, 관절 내시경, 스포츠 외상 정형외과 송무호(토마스)박사 미국 피츠버그 대학병원 전임 의사 영국 옥스포드 대학병원 연수 관절센터 예약 850-8747</p>	<p>하지정맥류 증점클리닉 길맥흥부외과 모카, 베나실, 고주파, 레이저, 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임페리얼타워 15층</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안과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 천원 바른병원 3층</p>
<p>모니카주단.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한복대여 김 필 분(모니카), 황 지 은(마리아)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151, 152호(1층 4호분 중2)</p>	<p>로앤리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이세진&변호사이윤대) 사무장. 김 성 철 (마르코) 010-5658-7748, 717-3530 부산 연제구 범원로 12, 1305호 (거제동, 로원타워) 검찰청 정문 앞</p>	<p>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 (베드로)</p>	<p>국내 성지순례 12/21(토), 12/28(토) 광주대교구 다산초당,목포산정동성당,나주순교자성당 참가비 4만원 미래고속관광 우중한 (리차드) 010-3720-0303</p>	<p>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 (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3층, 빨간색 간판)</p>